



# 인도 신연금제도의 특성과 한계

신진영 (인도 네루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 ■ 머리말

인도는 급속한 경제 발전에 힘입어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이르고 있으며 경제 규모에 걸맞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90% 이상의 노동 인구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이 매우 열악하다. 인도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08년 비공식 부문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법령을 통과시켰다.<sup>1)</sup>

그러나 문제는 재정이었다. 인도 정부는 적자재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용을 줄이면서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 하던 신연금제도(New Pension Scheme)를 2009년부터 전 국민에게 확대하게 되었다. 인도연금 개발관리공단(The Pension fund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은 연금인구 확대를 위해 2010년 4월부터는 저가연금(low-cost pension)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연금제도(New Pension Scheme)의 일종으로 특별히 일용직을 포함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발된 연금 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인도연금개발관리공단의 자료와 각종 정부 자료 및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12억 인구의 인도가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연금제도에 대해

1) <http://labour.nic.in/lc/44Slc/SLC-conference-Agenda.pdf>

살펴보고자 한다.<sup>2)</sup>

## ■ 신연금제도 실시 배경

인도에서 일반적으로 연금의 혜택은 공무원 혹은 고용주가 연금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20인 이상이 고용된 공식부문 근로자들만이 누릴 수 있었다. 이는 노동인구 90% 이상, 약 4억 6,000만 명의 비공식 부문의 근로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sup> 물론 신연금제도 이전에도 퇴직기금(Public Provident Fund)이나 고용기금(Employee Provident Fund) 등을 통해 근로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일정 비율 저축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제도로 7~15년 이상 납부를 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따라서 비공식 부문에 대한 단기적인 연금제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인도는 국민의 평균 연령이 26세인 ‘젊은 국가’라고는 하지만 현재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8,000만에 이르고 있으며, 20년 후에는 이의 두 배인 1억 6,00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4)</sup> 또한 청년실업을 줄일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공식 부문의 고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 노후에 대해 준비가 없는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준비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1998년 노령인구의 사회경제적 안전망에 대한 인도 정부의 논의에서 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 연금제도는 고용상태를 지원하는 것으로 퇴직 이후 노후 지원의 측면은 매우 약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재정 사정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약 Rs. 65,000 Crore(한화 약 16조 2,175억 원)의 비용이 드는 공무원연금은 정부에 부담을 주었다. 더구나 매년 20%씩 늘어나는 공무원연금은 정부 재정의 부담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인도 정부는 연금에 대한 논의 이후

2) 인도 연금 개발 관리 공단 홈페이지 <http://pfrda.org.in/>

3) <http://labour.nic.in/lc/44Slc/SLC-conference-Agenda.pdf>

4) [http://www.dnaindia.com/money/comment\\_new-pension-scheme-is-a-mirage-not-an-oasis-for-retirement-years\\_1261364](http://www.dnaindia.com/money/comment_new-pension-scheme-is-a-mirage-not-an-oasis-for-retirement-years_1261364)

공무원의 연금과 비공식화 부문에 대한 연금 제도를 개선 및 기획할 위원회(Bhattachary Committee and OASIS Committee)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인도 정부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향후 국민연금의 방향에 대해 건의했다. 첫째, 이들은 기존에 연금의 연(年) 납부 제도를 월(月) 납부 제도로 바꾸도록 건의했다. 둘째, 연금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어 연금 납부금의 범위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및 투자 부문에 대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건의하였다. 이들 위원회는 이것이 인도 정부가 연금 운영 비용을 줄이고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 경쟁을 유도하여 비용과 효용 면에서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이들은 비공식 부문의 연금 제도 개발과 홍보를 위한 연금관리국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sup>5)</sup>

인도 정부는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고 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들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였다.<sup>6)</sup> 정부는 2003년 인도연금개발관리공단을 설치하고 2004년부터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연금을 도입하였다.<sup>7)</sup> 그리고 5년 후인 2009년 5월부터 인도 연금개발관리국의 주도하에 동일한 이름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확대 적용하게 된 것이다.

## ■ 연금 가입 방법과 내용

인도 정부는 연금기획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연금제도를 마련하였다. 신연금은 가입을 원하는 18세 이상 55세 미만의 성인은 누구나 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연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금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되면 신청자는 퇴직 연금 번호를 갖게 된다. 연금 납부금은 최저 연 Rs. 6,000(한화 약 15만원)로 월납, 분기납, 연납이 가능하며, 연금 납부 상한선은 없다. 만약 연금 최저금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Rs. 100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연체될 경우 기금 운영 수수료가 납부금에서 공제된다.<sup>8)</sup>

5) <http://www.outlookindia.com/article.aspx?219415>

6) 이전까지 공무원들은 납부금 없이 연금 보장을 받았으나 신연금제도하에서는 공무원도 전체 임금의 10%를 납부하게 되었다.

7) 인도의 군인은 이미 안정적인 보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금기금은 전문 펀드 매니저들에 의해 운용된다. 가입자는 자신의 연금을 운영할 펀드 매니저를 6개의 국영 및 민간 펀드 매니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sup>9)</sup> 또한 가입자는 '선택'과 '자동' 투자로 연금 투자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 투자자는 E, C, G 그룹으로 나뉜 금융시장에 선택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룹 E는 증권 시장에, 그룹 G는 정부 채권에, 그룹 C는 기업 채권에 투자된다. '자동' 투자자는 가입자가 투자 부문에 대해 선택할 필요 없이 규정에 따라 50%는 그룹 E에, 30%는 그룹 C에, 그리고 20%는 그룹 G에 투자되며, 36세부터 그룹 E와 C의 투자 비율이 줄고 대신 그룹 G의 비율이 늘어나 만 55세가 되면 10%가 각각 그룹 E와 그룹 C에 그리고 나머지 80%는 그룹 G에 투자된다.

신연금제도에서는 퇴직 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다. 퇴직 연령에 이르면,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시 연금 총액의 40%는 보험회사의 종신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나머지 60%는 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60세 이전에 연금 수령을 원하면 총 연금의 80%를 종신연금에 가입하고 나머지 20%는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 가입자의 사망 시 지정 수령인이 총 연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 ■ 신연금의 특징

인도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적은 금액으로 연금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연금 상품의 연 납부 금액이 Rs. 15,000~18,000인 데 비해 신연금은 연 Rs 6,000로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서민의 연금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신연금은 운영비가 매우 저렴하다. 신연금의 펀드 매니저의 자금 운영 수수료는 연

8) <http://www.financialexpress.com/news/pension-tension/453767/>

9) 6개 펀드 매니저 기관은 ICICI Prudential Pension Management, IDFC Pension Fund Management, Kotak Mahindra Pension Fund, Reliance Capital Pension Fund, SBI Pension Funds, and UTI Retirement Solutions 이다.

0.0009%로, 연 0.75~1.75%의 운영 수수료가 부과되는 개인 연금 상품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가입자들이 부담 없이 미래를 위한 연금에 투자할 수 있다.

셋째, 신연금은 가입자의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 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납부한 연금을 운영할 펀드 매니저를 선택할 수 있고, 금융시장 특성에 따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sup>10)</sup>

넷째, 신연금의 연금기금은 이미 여러 금융권에서 활동 중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 펀드 매니저들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펀드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펀드 수익성 분석 자료에 의하면, 시중의 일반 연금 평균 18.5%의 수익률이 기대되는 반면, 신연금의 수익률은 28.5%로 약 1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1)</sup>

다섯째, 신연금제도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는 신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향후 행정적인 지원 및 홍보를 할 인력이 확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펀드 매니저를 맡고 있는 금융권에서도 연금기금 운영을 위해 약 15,000명을 새롭게 고용할 것으로 보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sup>12)</sup>

## ■ 신연금제도의 한계

인도 정부는 재정적인 적자를 겪는 가운데 다수의 비공식 부문 종사자와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연금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신연금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신연금에서는 퇴직 이후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 계좌가 제공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연금 수령에 대한 세금 공제 사항이 정착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금 수령자는 연금 수령 시 불로소득세로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10) <http://sanhati.com/articles/1550/>

11) <http://sanhati.com/articles/1550/>

12) <http://www.financialexpress.com/news/psu-companies-line-up-for-new-pension-scheme/562584/>

둘째, 인도의 신연금제도는 정부가 아닌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부양하는 시스템이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신연금은 출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연금제도란 정부가 퇴직 이후 인간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신연금제도는 특별한 보장성이 없는 연금으로, 다른 나라의 연금제도와 달리 정부가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신연금제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책임을 교묘하게 국민에게 떠넘긴다고 비판 받는다.

셋째, 신연금의 연 납부금이 적다고 하지만 현재의 수입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는 어렵다. 인도는 대다수의 국민이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임금이 적고, 규칙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대다수의 국민은 신연금을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sup>13)</sup>

넷째, 신연금제도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접근성도 매우 떨어진다. 공무원 약 68만 명이 신연금에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 국민 중 신연금 가입자는 매우 적다. 신연금제도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 이후 6개월 동안 약 3,000명이 이 연금에 가입했다. 가입자 수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가입할 수 있는 장소가 22개소로 매우 적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에서 출발한 신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신연금제도의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연금개발관리공단은 세금 공제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비록 연 Rs 6,000의 납부 비용이 높은 편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공식 부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0년 4월부터 연금기금의 최저 금액이 없는 저비용 연금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sup>14)</sup> 신연금제도의 홍보 부족 문제에 대해 인도연금개발관리공단 측도 적극적인 방안을 계획 중이다. 이들은 인도 상공회의소나 인도기업인연합회 등 각종 단체들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민간 기업에 대한 홍보도

13) [http://www.dnaindia.com/money/comment\\_new-pension-scheme-is-a-mirage-not-an-oasis-for-retirement-years\\_1261364](http://www.dnaindia.com/money/comment_new-pension-scheme-is-a-mirage-not-an-oasis-for-retirement-years_1261364)

14) <http://www.business-standard.com/india/news/pfrda%5Cs-low-cost-pension-plan-to-take-offapril-1/82306/on>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인도 IT 및 IT서비스 기업인연합회(NASSCOM)를 통해 인도 민간 기업에 판매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 ■ 맺음말

인구 12억에 이르는 인도에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안전망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된 신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도하는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혁신적인 측면이 있다. 신연금 제도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연금 일반화의 길을 열고 있으며, 연금기금 운영 수수료가 매우 적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빈곤층 금융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의 신연금제도는 개선해야 할 단점들이 있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까지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 비록 수수료가 낮다고는 하지만 이것만이 신연금제도의 전략이 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대부분인 서민층에게 미래를 위해 적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연금제도는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실시되는 신연금의 일종인 저가 연금으로 비공식 부문의 근로자들의 연금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금에 대한 홍보가 활발해지고 민간 기업들이 신연금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면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연금개발관리공단은 올 상반기까지 100만 명이 신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15)</sup> **KL**

15) <http://www.business-standard.com/india/news/pfrda-to-reach-out-to-industry-chambers-for-enrolling-companies/14/08/382390/>